



아시아리뷰

제14권 제3호(통권 32호), 2024

자유 주제

고등학교 야구대회를 통해 읽는 한국의 냉전문화*

조영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이 글은 1970년대 전국 스포츠로 인기를 누린 고등학교 야구대회를 통하여 한국 냉전문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해방 후 분단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부활한 고교야구 대회의 개최 및 전국화의 과정을 통해 냉전 기간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속에 형성된 한국 냉전문화의 특성을 고찰한다. 냉전 기간 한국에서 야구가 전국 스포츠로 성장하는 과정은 아시아에 새로운 권력이 된 미국의 헤게모니를 반영하는 동시에 구-제국인 일본 식민 통치의 유산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이 과정은 한국 야구 관계자와 선수 그리고 관중과 팬이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천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고교야구는 탈식민인 동시에 분단된 한국에 '전국'의 구체적인 감각을 형성하며 냉전 문화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 글은 고교야구로 대표되는 냉전기 한국 야구가 미국과 일본의 이중적 제국과의 교섭 가운데, 그리고 개발독재기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한국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성으로 구성된 냉전문화의 역동성과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논의한다.

주제어 고등학교 야구대회, 냉전문화, 이촌향도, 탈식민

I. 문제 제기: 탈식민 분단국가의 냉전문화 읽기

이 글은 1960-70년대 전국 스포츠로 인기를 누린 고등학교 야구대회를 통하여 한국 냉전의 특징과 대중들의 실천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성장하는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권력이 된 미국의 영향력과 구-제국으로 일본 식민 지배의 지속된 영향력을 동시에 반영한다. 동시에 신문,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4716).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진행된 연구임. 자료 수집 과정에서 도움을 준 국제협력전략센터의 서상희 조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 choy@hufs.ac.kr

고교야구대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와 사람들은 해방 및 분단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출신지역의 고등학교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향촌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었다. 냉전 기간 부활하고 성장한 고교야구대회를 통하여 이 글은 분단국가로서 한국 사회가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상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형성한 냉전문화의 특성을 분석한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냉전은 유럽의 냉전과 같이 총성 없는 전쟁의 양상이었다기보다,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 전면전과 함께 문화와 이데올로기 대결이라는 ‘열전’과 ‘냉전’이 동시에 작동한 시기였다(권현익, 2013). 일본 제국의 패망과 동시에 시작된 한국과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에서 미국은 지역 내 패권국가로 부상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기 위하여 일본을 협력자로 삼아 냉전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제국인 일본의 식민구조는 청산되지 않았고, 북한과의 경쟁 속에서 독재정권과 군사동원의 체제가 지속되는 등 탈식민의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김예림, 2007). 또한 유럽의 냉전은 1990년 독일 통일 및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라는 종식의 시기가 명확했지만, 동아시아의 냉전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나누어져 지정학적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냉전의 종식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한국의 냉전체제와 그 속에서 형성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전과 냉전이 공존하는 동시에 탈식민의 과정이 부재한 채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맥락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이 주목받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 냉전문화에 관한 연구는 과거를 이해하는 동시에 현재의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냉전 시기 스포츠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 진영이 체제 대결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었지만, 냉전 정책에서 스포츠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유럽 중심적일 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스포츠는 국가의 관여 및 개입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동시에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체제 대결 및 대중 동원에 있어 스포츠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신주백, 2006). 한국의 냉전문화를 탐색하는 데도 국제관계 및 정부의 역할 등 구조적인 영역과 선수 및 관중 등의 대중 참여라

는 미시적인 영역이 다층적으로 접합되는 스포츠 영역에 대한 탐구는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의 맥락에서 야구는 한-미-일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뿐 아니라 식민과 냉전, 그리고 냉전과 산업화와 세계화 시기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데 적절한 스포츠이다. 야구는 미국 선교사를 통하여 개화기에 서구 문물과 함께 한국 및 일본에 도입되면서, 미국 근대성 및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national pastime)이다. 이후 야구는 미국인보다 일본인 교육자와 선수에 의해서 일본 식민 통치기에 한국과 대만 등에 널리 전파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스포츠이다(손환·김재우, 2003). 산업화와 세계화 시기에 ‘한일 슈퍼게임’¹ 등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 리그의 교류가 진행되었고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 Major League Baseball)와 세계야구대회(WBC: World Baseball Classic)에서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과의 경쟁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야구는 근대적인 것의 상징인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이중적 영향력에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 글은 냉전 기간 고교야구대회가 전국대회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의 이중적 영향력이 한국 냉전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 방식을 탐색한다. 미군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영향력과 재일교포선수단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고교야구 선수와 관계자 그리고 관중이 만들어 간 한국 냉전문화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냉전 기간 국민 스포츠로 부상한 고교야구가 분단국가로서의 공간적 정체성과 개발독재기에 지역감정 및 향토 소속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고교야구가 반영하고 형성한 냉전문화의 특질은 새로운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영향과 함께 과거 일본 식민 통치의 영향력이 제도와 습속, 그리고 개인의 실천을 통하여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¹ 한일 슈퍼게임은 1990년대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팀이 맞붙은 경기로, 총 세 차례(1991년, 1995년, 1999년) 개최되었다.

II. 스포츠를 통한 한국 냉전 다시 읽기

1. 야구를 통해 냉전문화의 탐색

본 연구가 주목하는 스포츠 그리고 야구는 문화의 한 영역이고, 냉전 연구에 있어 문화에 관한 관심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발생하면서 이른바 냉전 연구의 ‘문화적 전환’(a cultural turn)을 이루었다. 기존의 냉전 연구가 외교 및 국제 정치 분야에 집중하였다면, 새로운 흐름은 문화와 사상의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노력을 다루는 연구와 냉전이 다양한 문화적 측면들과 맺는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연구의 경향으로 나타난다(이주영, 2015). 전자는 ‘문화적 냉전’(the Cultural Cold War) 연구로 교육, 연구, 출판, 번역, 미디어, 스포츠, 언어, 종교, 전시회 등을 포괄하여 심리전과 사상전에 주목한다(김려실, 2016; 손터스, 2016). 후자는 ‘냉전문화’(Cold War Culture) 연구로 불릴 수 있는데, 문학, 영화, 음악과 같은 미디어 영역을 넘어 냉전 시기 공동체의 기억과 인식과 생활양식을 포괄하며 아시아 각국의 국민문화 형성을 냉전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한다(백원담, 2017; 오타 오사무 & 허은, 2017).

문화적 냉전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미국과 소련이 벌이는 체제 대결 속에서 문화적 헤게모니 경쟁이 벌어지는 문화 행사와 네트워크 형성의 공간이다. 특히 유럽을 배경으로 진행된 미국과 소련의 정부 기관과 그 후원을 받는 조직 및 문화 행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손터스, 2016; Mitter & Major, 2004; Rider, 2016). 최근 연구는 점차 열람할 수 있는 미국 공공기관의 비밀문서를 통하여 미국 CIA와 미공보부 등의 국가기관이 민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 사업에 주목한다. 문화적 냉전 연구는 한국과 아시아의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주로 영화, 교육, 방송, 영어 교육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2008 & 2009; 마루카와 테쓰시, 2010; Hajimu, 2015; Hughes, 2012; Lee, 2020; Westad, 2007). 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문화적 냉전 연구 역시 주요 관심사는 미국 정부기관의 각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재정적·인적 원조, 그리고 방송과 영화 영역에 있어 미국 기관이 개별 국가의 기관 및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지점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적 냉전 연구는 미국이 냉전 지역 및 국가에 영화, 음악, 문학, 잡지, 전

사회 등을 통하여 행사한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 정치와 문화의 연계 지점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적 냉전 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의 정부나 민간에 ‘팍스 아메리카’ 세계관 및 반공주의 이념이 확산하는 경로,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과 아시아 개별 국가 정부 및 사적 기관이 연계되고 인적이고 제도적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적 냉전 연구가 기존 냉전 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중요한 공헌을 하였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 첫째, 문화적 냉전 연구가 여전히 유럽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연구의 주요 배경이 유럽이라는 측면을 지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에 관한 연구도 주요 자료를 미국 국무부 자료 및 도서관에 의존함으로써 미국 또는 서구 중심주의를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포함한다(김려실, 2019). 둘째, 문화적 냉전 연구는 정부와 국가 기구, 특히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기획된 행사 및 프로그램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지나친 강조점을 둔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 기관의 역할과 프로그램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기도 하고, 아시아 국가와 사회의 기관 및 집단의 역할은 수동적이거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 결과, 셋째, 문화적 냉전 연구는 냉전 정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의 개인과 집단의 일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² 기존 연구가 냉전의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방식, 그리고 냉전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사회와 개인의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와 한계 속에서 문화적 냉전에 관한 연구는 냉전 시기를 살아가는 특정 공동체, 국가, 민족, 그리고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 및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검토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하는 냉전문화 연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개별 국가 및 특정 집단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정책과 프로그램을 활용, 소비, 그리고 실천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연구의 초점이 냉전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기보다 상대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체화되는 개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맥락적 지식과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아

² 암스트롱은 한국 문화적 냉전에 관한 연구가 “일반 한국인들에 의해 문화와 프로파간다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Armstrong, 1996: 72).

시아의 냉전문화 연구는 냉전과 열전이 공존하는 배경 그리고 냉전체제로 인하여 탈식민 과정이 탈각된 맥락이 한국과 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반영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백원담·강성현, 2017). 물론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문화적 냉전과 냉전문화의 영역을 항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냉전과 냉전문화 연구는 ‘문화적 전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냉전과 냉전문화 연구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연구의 초점을 한국 사회와 구성원이 냉전 프로그램과 문화 이벤트에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화하는 한국 냉전의 문화적 특징을 논의하는 데 두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야구는 냉전문화를 탐색하기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야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로 미국의 국민스포츠로 여겨지면서 동시에 미국 문명의 상징으로 확산하였다. 냉전 기간 그리고 현재도 야구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한국의 냉전 문화를 다루는 데 적절하다. 동시에 야구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남미와 동아시아 등 일부 권역과 국가에서 유행하는 등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보여준다(Butterworth, 2017; Szymanski & Zimbalist, 2005). 그렇기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열광하는 축구와 국가대표가 참여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와 달리, 야구는 체제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Gmelch & Nathan, 2017; Klein, 2006). 독립과 분단을 경험한 냉전 시기 한국의 맥락에서도 야구는 매우 대중적이었지만, 축구, 권투, 그리고 레슬링과 같이 한일 대결, 남북 대결 등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는 아니었다(천정환, 2010).

이와 같은 야구의 특징은 문화적 냉전과 동시에 냉전문화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야구는 해방 후 한국과 동아시아 내 미국의 헤게모니를 상징하고 미국, 특히 미군에 의해 실시되고 지원된 문화정책과 이벤트가 개입된 영역이다. 동시에 야구는 식민 시기부터 지속된 일본 제국의 영향력과 유산이 반영된 스포츠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중적 영향력이 한국의 냉전문화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면서 미국의 냉전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일 국가적인 관점을 넘어 야구는 식민 시기에 일본 제국-식민의 네트워크가 일본-한국-대만을 연결하면서 형성된 미국 중심의 냉전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과정을 효과

적으로 보여준다(사카이 나오키, 2008). 또한 국가와 정부의 지원과 통제 아래 있었지만, 야구는 일본 식민 시기부터 형성된 엘리트 학원 스포츠의 전통과 대중적인 인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대회를 조직하고 치러졌다. 박정희 정부가 군국주의적 체육 정책을 펴면서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체육과를 체육국으로 승격시키고 태릉선수촌을 완공하는 등 엘리트 스포츠의 기틀에 정책의 힘을 주었다(김동규, 2000; 정준영, 2007; 허진석, 2010).³ 또한 박정희 정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박스컵’(Park’s Cup)을 1971년 신설하여 남북 대결 및 한일 대결로 주목받는 축구를 통한 국민을 동원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달리 학원 스포츠로 역사적 전통과 대중의 사랑을 받은 야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군사 정권의 독재 정치와 통제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혹은 순응이라는 선택지만이 아닌 다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회색 지대를 만들어 간 냉전의 일상과 실천을 이해할 수 있다(이하나, 2015).

2. 한국 냉전문화를 읽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

본 연구는 해방 시기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야구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과거에 관한 연구이지만 역사학 연구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야구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해제하는 방식보다는 한국 야구의 역사를 한국 냉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야구 역사의 주요 연대기와 이벤트를 기초로 삼으면서 야구에 대한 보도자료, 선수들의 회고록(자서전), 야구에 대한 영상물, 그리고 야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록물과 학계의 연구를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야구에 대한 역사적 서사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가를 밝히는 실증적인 사관이나 새로

³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국가주의적 스포츠는 일본식 교육의 영향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1972년 도입한 ‘국민체조’는 일본 식민지 시기 황국신민체조의 원형으로 보급한 사례이다(정준영, 2007; 142).

은 자료의 발굴에 집중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사건, 기록, 그리고 기억과 재현들을 상징적이고 징후적으로 독해하여 냉전체제라는 당시의 맥락을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둔다(이용기, 2009). 이는 다양한 주체와 사건,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그리고 대중적 정서들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관계를 해석하여 하나의 결정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 가능한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연구의 ‘급진적 맥락주의’(radical contextualism) 또는 ‘국면 분석’(conjunctural analysis)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그로스버그, 2023; 조영한, 2012; 홀, 크리처, 제퍼슨, 클라크 & 로버츠, 2023). 이를 통하여 냉전 기간 주목받지 못하였던 영역과 주체들 그리고 현재 너무 익숙하여 분석의 초점이 되지 못하였던 제도, 영역 그리고 주체들 간의 교차점들의 새로운 논리를 추적하고자 한다(이희은, 2011).

한국 냉전 문화를 구성하는 당시의 복잡한 힘의 경쟁과 시간의 중첩, 그리고 다차원적 공간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냉전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한다. 첫째, 냉전의 시간을 보편적인 시간대 혹은 고정된 시간으로 인식하기보다 특정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유동적으로 구성된 시기로 접근한다.⁴ 냉전이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로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보는 보편적인, 아니 서구의 접근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냉전의 시기, 즉 시작과 끝은 각각 다르게 경험된다(Lee, 2022: 14).⁵ 동시에 한국에서 냉전은 단절된 시간의 축이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 산업화와 세계화의 시간대를 연결하는 시기인 동시에 탈식민과 냉전의 힘이 충돌하는 시간대이다. 냉전을 한 사회의 연속과 단절을 이해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접근함으로써, 한국의 냉전은 군사주의와 같은 일본 식민 통치의 유산이 작동하는 동시에 근대화 대한 열망인 산업화와 세계화의 조건이 구성되는 시간대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냉전의 공간을 국가 단위로 접근하기보다 국가(state), 권역(region) 그리고 세계(globe)가 공존하고 중첩되는 영역으로 접근한다. 정치사를 중심으로 한

⁴ 냉전에 관한 시기 구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Duara(2011) 참조.

⁵ 이남희는 뉴라이트의 수정주의 역사관과 역사 다시쓰기를 통한 ‘문화전쟁’(culture war)이 한반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전히 냉전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서술한다(Lee, 2022: 14-16).

기존의 냉전 연구가 한반도에서 전쟁과 체제 경쟁을 통해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경쟁국 출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문화적 접근은 한국의 냉전이 지닌 초국가적이면서 동시에 권역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일 국가적 시선이 아닌 권역의 역동을 고려하고 관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한국 냉전의 공간은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라는 세계 체제의 결과물이자 국제전으로 한국전쟁을 해석하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한석정, 2016). 이러한 공간적 접근은 한국 냉전문화를 미국과 일본의 상관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하는 공간으로 한국 냉전을 사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냉전에 대한 시공간적인 재정의의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냉전을 단지 과거에 대한 시공간이 아닌 현재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시공간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미국과 일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 권역적이면서 초국가적인 차원의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냉전 시기에 관한 문헌자료, 즉 야구에 대한 공식 자료, 신문 및 방송 자료, 사회경제 등을 검토한다. 야구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체육회가 발간한 『한국 야구사 1, 2』와 『사진으로 본 한국 야구 100년』를 기본 자료로 살펴본다. 해방기와 냉전기 주요 인물 및 특화 주제에 대한 자료는 한국학 자료 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속 <근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 <근현대 인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요 단어, 행사명, 그리고 인물명을 통하여 자료를 찾는다.

야구가 유통, 관람 그리고 소비되는 방식과 대중들의 다양한 참여 및 활용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야구를 보도한 뉴스 및 방송 기록, 야구에 대한 잡지 및 에세이의 묘사, 야구인 및 관련 종사자의 구술자료, 그리고 고교야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및 영화를 검토한다. 주요 신문사이자 야구대회를 조직하였던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기사와 1970년대에 제작된 야구를 다룬 영화 <고교결전 자! 지금부터야>(1977, 정인엽 감독)와 재일조선인 선수단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라운드의 이방인>(2014, 김명준 감독) 등의 재현물을 살펴본다. 장훈, 김성근 등 야구인의 자서전과 야구팬으로 한국 야구를 다룬 출판물을 함께 다루면서 기억으로서 서술된 냉전 시기의 고교야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다. 또한 미국의 야구가 일본 및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정착하

는 경로 및 과정을 분석한 연구서와 논문을 참고하여 냉전 시기 한국 야구를 해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본 논문은 고교야구라는 작은 틈을 통하여 해방 후 국민 만들기가 중요 과제였던 탈식민 국가인 한국의 문화정치를 이해하는 동시에, 1960년대 열전이 마무리되면서 냉전의 질서가 축조되는 시기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조형근, 2024). 냉전 기간 야구의 문화정치를 분석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한국 사회의 변동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그리고 세계-권역-국가의 중첩으로서 한국 냉전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미군정 시기 야구의 부활과 미국 해계모니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야구는 일본 식민 시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그리고 만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지만(가와시니 레이코, 2017; 오시마 히로시, 2023), 태평양 전쟁(1941)의 발발 이후 야구는 일본 제국의 ‘적성국 운동’, 즉 미국의 운동이라는 오명 속에 일본과 식민지에서 모두 금지되었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1999a: 54). 그러나, 야구는 해방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정 아래 신속히 부활하였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한국-대만의 냉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Guthrie-Shimizu, 2012). 미군정 시기에 신속하게 부활한 야구는 한국과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미국이 일본을 대체하여 등장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냉전 파트너 역할을 담당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해방 후 한국 체육계는 1946년 조선체육회를 재건하는 등 독립 국가로서 제도 정비에 앞장섰고, 야구계 역시 1946년 3월 18일 조선야구협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5월 첫 야구대회로 4개 도시 대항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1999b: 401-403; 자유신문, 1946/05/15). 그리고 1946년 9월에는 첫 전국중등학교야구(현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인 청룡기가 개최되었고, 1947년에는 황금사자기의 전신 격인 전국중등학교야구쟁패전이 개최되었다(동아일보, 1947/08/01). 해방,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는 가운데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매우 부족하던 시기에 한국 야구와 고교야구 대회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편 한국 야구인과 미군정의 노력이 합해져서 한국과 미국의 정기적인 야구 대회가 1946년에 광복 일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1946년 8월에 개최된 ‘조미 친선야구대회’에 최초로 한국 야구대표팀이 구성되어 미 제24군단 야구단과 시합을 치렀다(동아일보, 1946/08/12; 자유신문, 1946/08/12). 당시 미 제24군단 정훈부의 레크리에이션 담당인 잉거프리센 소령은 미국 병사들의 기강 해이와 사기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친선 야구대회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이날 경기는 3대 4로 미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잉거프리센 소령은 한국팀이 1점을 내면 공 10다스(120개)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경기 결과에 따라 대회를 주최한 『자유신문』 측은 미군으로부터 야구공 30다스를 받게 된다. 당시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자유신문』은 미군으로부터 받은 야구공 30다스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받은 돈을 바탕으로 대회 경비 10만 원을 마련하여 청룡기 야구를 개최할 수 있었다.⁶

한국전쟁(1950-1953) 동안 국토가 폐허가 되고 야구도 단절되었지만, 야구는 신속하게 부활되었다. 휴전 후 첫 광복절을 축하하기 위한 한미 친선 야구대회가 1953년 8월 15일에 개최되었고(유홍락·천일평·이종남, 1999b: 459), 이후 한미 친선 야구대회는 1957년부터 1970년까지 정식 대회로 1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김은식, 2024). 전쟁 기간 중단되었던 고교야구 대회도 곧 부활하였는데, 전쟁 기간 주요 간부들이 납북된 『자유신문』을 대신하여 『조선일보』가 청룡기 대회의 주최를 맡아서 1953년 10월 대회를 열었고(조선일보, 2020/03/06), 황금사자기 대회도 1954년에 부활하여 고교야구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동아일보, 1954/10/09).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 야구는 이 외에도 군인 야구단과 대학 야구와 실업 야구단이 정기적인 대회를 지속하였지만, 경제적 열악함과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 본격적인 야구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지는 못하였다.

미군정은 야구를 활용하여 한국 대중들에게 미군과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미군 야구단의 야구 경기, 특히 한국 야구팀과의 경기는 한국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고, 미군 그리고 미국에 대한 한국 대중의

⁶ 당시 야구공의 가치는 쌀 한 가마니와 비슷하였는데, 당시 야구공 30다스로 7만 5천 원을 빌렸고, 총 대회 경비를 준비하였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1999: 411-412).

친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이종성, 2024: 93-95). 미군은 한국과 일본 등 점령지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미국식 가치관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야구 전파 및 문화정책 시행에 적극적이었다(구건서, 2010; 김학선, 2022). 미군 야구단의 직간접적인 지원 역시 해방 후 한국 야구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미군은 사용한 야구공, 배트 그리고 글러브 등 물질적 장비를 한국 야구팀에 기증하는 동시에, 미군 야구 선수들은 앞선 야구 기술과 규칙을 한국 선수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1960년대 경동고, 인천고등학교와 경남고는 각각 인천과 부산의 미군 부대의 야구팀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았고 미군과의 야구 시합을 통하여 이후 고교야구 대회에 강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김은식, 2024).

냉전 초기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고교야구를 준비하는 주요 인물의 구성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미군정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한국 야구 대회에 자주 참석하여 시구와 축사를 하였다. 미군정 최고 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조미대항야구 대회의 축사를, 그리고 미군정청 장관이었던 러치 중장은 제1회 청룡기의 개막일에 미 제24군단 선수들의 야구 시범과 함께 축사를 하였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2009b: 417). 하지 중장은 축사에서 “국가의 힘의 원천은 국민체육에 있으니 체육 경기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스포츠를 통한 한국인의 국력 회복을 강조하였다(조선일보, 2020/09/01). 1949년 3회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는 첫 주한미국 대사인 무초가 포수를 맡아서, 당시 임병직 야구협회장 투수의 공을 받아 첫 한미 친선 시구의 모습을 보였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2009b: 441). 또한 한국 측 역시 미국과 강한 연관성을 가진 인물들이 고교야구 대회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1946년 조선야구협회를 결성하고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정순 자유신문 편집위원장은 뛰어난 영어 솜씨를 기반으로 미군정청 출입 기자단 간사를 맡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군과의 친선 경기를 유치할 수 있었다(이종성, 2004: 93-103). 한국 야구에 디딤돌 역할을 했던 이정순은 한국전쟁 시기에 동료 야구인들과 함께 북한으로 납북되었는데, 이러한 비극은 이정순을 냉전 시기 한국 야구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하게 해준다. 야구협회장이었던 임병직은 1913년 미국으로 건너가 영어와 야구를 배웠고 해방 후 귀국하여 외무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윤치영은 한국 첫 야구팀인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야구를 배워 심판으로 활동하였

다(동아일보, 1949/03/15). 이와 같이 미 군정기와 냉전 초기에 한국에서 영어를 할 수 있거나 미국에서 야구를 배운 한국인의 역할이 고교야구대회의 성장에 중요하였다.

냉전 시기 미국 프로야구단의 방문은 한국 야구의 상업화와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 야구는 첫 고교야구대회인 청룡기의 창립 대회부터 입장권을 관중에게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시도를 하였고 개막전에는 1만여 관중이 모이는 등 성공을 거두었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2009b: 415-417). 1958년 10월 한국일보의 추천으로 미국 프로야구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팀과 1962년 10월에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팀이 한국에서 치른 친선 시합은 야구 열기를 크게 높였다(동아일보, 1962/10/16; 조선일보, 1962/10/16). 특히 1958년 카디널스의 경기는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하여 시구를 하면서 국가적인 행사로 큰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대한뉴스, 제186호; 조선일보, 1958/10/15). 이날 경기에 동대문 야구장에는 3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였고,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예매제도와 함께 5등급으로 표를 나누어 판매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조이뉴스, 2016/07/06). 미국 프로야구팀의 초청에는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었던 장기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장기영은 조선일보 취체역 사장을 역임하던 1950년 초 남북당한 이정순을 대신하여 청룡기 대회를 지속해서 추진하였고, 이후 1971년에는 한국일보에서 봉황대기를 새롭게 창설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해방과 분단 직후 한국에서 야구의 신속한 부활 그리고 고교야구대회의 개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미국이 등장한 것을 상징할 뿐 아니라, 소련과 공산주의와 대결하던 미군정의 통치를 위해서 동아시아에도 미국의 국민 스포츠인 야구의 대중화가 필요하였음을 드러낸다. 미군정 및 미국의 영향력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야구의 급속한 부활은 미국 주도 하의 문화적 냉전의 부속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고교야구의 인기는 미군정의 의도에 의해서만 그리고 미국 정부의 문화정책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야구인 역시 야구 조직의 설립과 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탈식민 국가의 재건에 이바지하려 하였고, 식민 시기에 ‘일본의 스포츠’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야구의 대중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미군과의 친선 경기에 적극적이었다(김은식,

2024; 이종성, 2024). 또한 냉전 기간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초 역시 야구를 통한 미국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고교야구대회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V. 고교야구 확산 속 일본의 영향과 탈식민 딜레마

한국에서 야구는 미국 선교사인 질레트를 통해 1904년 도입되었지만, 야구가 확산한 것은 일제 식민 기간 일본인 교육자와 통치자들을 통해서이다(Cho, 2016; Reaves, 2002). 해방 이후에도 한국 야구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탈식민 시기,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영향력을 금지하고 배척하는 시점에 한국 야구에서 발견되는 일본 식민의 유산과 영향력은 당시 한국 사회의 딜레마와 맞닿아 있다. 냉전 기간 한국 고교야구는 해방 국가로 누리는 전국대회의 감격이 표출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일본 식민 통치의 유산과 우월성이 재확인되는 이중적인 공간으로 작동된다.

해방 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본 식민 지배의 영향력과 유산을 지우는 일이었다. 야구를 통한 탈식민의 감격을 표현하는 과정은 통과 의례와 같이 필수적이었고,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46년 8월 15일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의 준결승전은 라디오로 생중계되었는데, 윤일구 아나운서는 해방 후 첫 라디오 생중계의 기쁨을 13개월 만에 할 수 있었다고 해방의 감격을 전국의 시청자와 공유하였다(구본능·하일, 2005: 187). 이날 경기는 해방 후 한국의 방송 역사에 최초 라디오 생중계 경기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36년간의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해방의 감격을 생각한 지 어느새 일 년하고 일 개월이 흘렀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짐승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오기까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야구 중계를 기회로 삼아 국가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더 자주 스포츠 중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2009b: 420).

배일(排日)을 강조하던 이승만 정부는 일본 대표팀의 한국 방문 경기를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일본대표팀과 마주하게 된 한국대표팀은 한동안 일본팀에게 대패하면서 일본 야구의 우월성을 각인시켰다.⁷ 하지만, 박정희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196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선수권 대회에 일본팀의 내한이 허가되었고, 한국팀이 일본팀을 처음으로 격파하였다. 일본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야구는 대중에게 ‘타도 일본’의 기쁨을 가져다주었고 야구 열기를 전국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조선일보, 1963/09/26). 또한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운동장(동대문야구장)에 조명탑 설치를 약속하였고, 이후 1966년에 조명탑이 설치되어 첫 야간 경기가 개최될 수 있었다(동아일보, 1966/10/04; 문화일보, 2013/07/12).

그런데도 야구는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영역이었고, 냉전 시기 야구 전성기를 이끈 고교야구 대회는 두 가지 점에서 일본 식민 통치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해방 후 고교야구를 이끌었던 중고등학교들의 기원이 일제 식민 시기에 있었다. 한국 고교야구의 핵심이었던 경북고, 경동고, 동산고 등은 일제 식민 시기에 시작한 엘리트 학교들이었고, 해방 후에도 동일한 지위 속에서 우수한 야구부를 꾸릴 수 있었다. 일제 식민 시기인 1926년부터 1935년 사이 서울의 8개 중고등학교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동일하게 엘리트 학교의 야구부를 중심으로 한 대회가 한국 야구 인기를 견인하였다(해방 뉴스, 1946/10).⁸ 또한 야구는 다량의 그리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스포츠이고, 대부분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였기에 다른 스포츠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종목이다. 그렇기에 식민 시기에는 엘리트 출신 가족의 자녀들 중심으로 그리고 해방 후에는 엘리트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야구부 유지가 가능하였다. 엘리트 학교의 후광과 함께 야구는 근대식 유니폼으로 한국 사회와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뛰어난 고교야구 선수는 이른바 인기 스타가 되기도 하였다. 1960-1970년대 고교야구 스타로 ‘오빠부대’의 백인천과 남우식, 윤몽룡 등 각 팀의 에이스 선수들

⁷ 1959년 아시아야구선수권 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은 일본대표팀에게 20 대 1 패배를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2009b).

⁸ 1946년에 부활한 4도시 대항 야구대회는 식민 시기에 시작한 학교 간 야구대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해방 뉴스(회차 미상), 1946/10, KMDb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은 전국에서 팬레터를 받는 등 당시 인기인이었다(최홍섭, 2022: 23).

둘째로 한국과 일본의 고교야구 대회 조직 및 운영의 방식이 동일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고교야구 대회는 대부분 신문사에 의해 후원 및 조직되고, 학교는 각 지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혜자·에사시 쇼고, 1998). 이러한 방식의 기원은 일제 식민 시기 일본 신문사인 『아사히』가 조직한 중고등학교 야구대회인 ‘여름 고시엔’에서 시작되었다. 식민 시기에 한국, 대만 그리고 만주의 학교 선수들 역시 내지인의 자격으로 고시엔에 참여하면서, 동아시아 내 일본 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가와니시 레이코, 2017). 해방 후 한국 고교 야구대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한국일보 등 전국 신문사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전국의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전국화를 시행하였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식민의 역사가 해방된 한국에서 경험된 또 하나의 매개체는 재일조선인 학생야구단이었다(손환·김승재, 1997).⁹ 재일조선인 학생 야구단의 한국방문 및 친선 경기는 한국일보와 대한야구협회의 초청으로 1956년 8월 시작되어 1965년까지 지속되다가, 잠시 휴지기를 가진 후 1971년부터 주요 고교야구대회인 봉황기에 참가하였다(조선일보, 1958/08/12). 한국 야구의 흥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른바 선진야구의 도입이 절실하던 1950년대 미국은 너무 먼 대상이었고, 일본은 너무 미운 상대였다.¹⁰ 하나의 대안으로 재일조선인 야구단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재일조선인 야구단은 친선 경기 이외에도 판문점 견학 및 국립묘지 방문 등 반공 활동을 함께 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졌다(오시마 히로시: 2023). 첫 방문이 성사된 1956년이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복송 운동이 준비되던 시기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송 운동이 북한과 연계된 재일조선인의 조직인 조총련 주도였다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과 연계된 민단이 재일조선인 학생 야구단을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재일조선인 야구단의 방문은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한 냉전의 부산물이었다.

⁹ 재일조선인은 해방 이후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본에 남은 조선인을 가리킨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야구단의 기원은 1908년 동경유학생 야구단의 방문이 처음이고 이후 식민 시기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유홍락·천일평·이종남, 2009a).

¹⁰ 영화 <그라운드스 이방인>의 대사 중 발췌.

첫 방문부터 제일조선인 야구단은 뛰어난 야구 솜씨로 한국 야구계와 대중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제일조선인 야구단은 성공한 한국인으로 환영받았는데(대한뉴스 126호; 조선일보, 1956/08/30; 조선일보, 1957/08/09). 특히 1960년대 초기 참석 한 배수찬, 김성근과 같은 일부 선수들은 이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야구팀과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야구의 성장을 도왔다. 3회 선수단에 소속된 장훈은 훗날 일본 프로야구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일 야구 교류에 기여했는데, 당시 한국방문을 “어떤 ‘운명의 끈’”으로 느끼면서 김포공항에서 받은 환영식에서 감동을 받아 “아, 이것이 조국이구나”라고 회고하였다(장훈, 2007: 48). 그러나 환대는 제일조선인 야구단을 향한 한국인의 반응 중 일부였고, 그들은 한국에서 ‘반쪽발이’로 불리면서 민족적 비난의 대상도 되었다. 특히 제일조선인 야구단이 고교야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한국 고교 야구팀 우승의 경쟁 상대가 될 때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제일조선인 선수는 때로는 북한과 가까운 대상이자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문제적인 인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제일조선인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하여 대표팀과 실업팀에서 활약하였던 배수찬 선수는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가족 중 일부가 조총련에 연계되어 북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40여 일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오시마 히로시, 2023).

일본 식민 통치의 영향력은 당시 고교 야구팀에 가득하였던 폭력적 훈육과 승리 지상주의와 같은 통치 체제에서도 발견된다(한석정, 2016; Eckert, 2016). 특히 구타 등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훈육은 고교야구의 훈련 과정에 상시적이었다. 1976년 대구상고 에이스였던 김시진 선수는 당시 폭력을 회상하면서 “구타 때문에 야구단원 가입을 일 년 미룰 정도였다. 하루 안 맞으면 다음 날 두 배를 맞는다”라고 기억한다(최홍섭, 2022: 275). 1977년에 개봉된 영화 <고교결전 자! 지금부터야>는 1972년 군산상고의 우승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는데 야구부 선배 배 간에 벌어진 폭력 행사 및 이에 대한 감독의 대처가 주요 모티브로 재현되었다.¹¹ 이러한 폭력을 당연시했던 것은 우승을 포함한 승리가 야구단의 절대적 목표였기 때문이다. 구타와 폭력 그리고 승리 지상주의는 일본 식민 지배의 통

¹¹ 영화 <고교결전 자! 지금부터야>에 대한 정보는 KMDb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참조.

치성이 해방 후에도 한국에 지속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 야구는 극복해야 하는 대상인 일본 식민 지배의 유산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모순적인 영역이었다. 특히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거치면서 ‘왜색’ 담론은 일본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냉전 체제 속에서 일본이 배제할 수 없는 타자가 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김성민, 2017). 식민의 역사가 배태한 재일조선인 야구단에 대한 환대와 차별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일본을 배척하는 동시에 욕망하는 한국 사회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한국 고교야구의 인기는 왜색을 강하게 금지하면서 동시에 일본을 은밀히 욕망했던 한국 사회의 모순적 반응이 냉전문화로 체화된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1970년대 ‘전국대회’로 성장한 고교야구 대회

한국 고교야구의 인기는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다. 1967년 대통령배, 그리고 1971년 봉황기가 창설되면서 기존의 청룡기, 황금사자기와 함께 이른바 4대 고교야구 대회를 구성하며 그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1973년 봉황기 대회는 총 42개교 출전, 그리고 18만여 명의 관객이 동대문 운동장에 모여 최고 흥행 기록을 남겼다(최홍섭, 2022: 170). 고교야구가 전국 스포츠로 확산하는 과정에 전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과 도시의 향토애 발현,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적극적인 매개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 스포츠로 사랑받는 고교야구는 탈식민인 동시에 분단된 한국에 ‘전국’의 구체적인 감각을 형성하며 냉전 문화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였다.

초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우승은 일제 식민 시기부터 야구부를 운영하거나 미군이 주둔하였던 서울, 인천, 그리고 대구와 부산 지역 고등학교의 몫이었다(김은식, 2024: 78-79). 그러던 고교야구가 진정한 의미의 전국대회로 발돋움한 것은 1970년대 초반 호남 지역 고등학교가,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충청 지역 고등학교가 대회 우승을 하면서이다. 기존의 지역편향을 넘어 1972년 황금사자기에 군산상고가 호남 출신 학교로 첫 우승을, 1975년 대통령배에는 광주일고가

첫 우승을 하면서 호남에 고교 야구붐을 일으켰다. 신규 학교의 대회 우승은 다른 고등학교에서 야구부를 새롭게 유치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졌고, 1977년 대통령배에 충청의 공주고가 첫 우승을 하면서 신흥 고교야구단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1972년 우승한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별칭을 얻었고, 대회 후 군산 시청 앞에서 큰 축제를 하는 등 고교야구 대회 신드롬의 상징이 되었다. 전국대회를 우승한 고교야구팀은 고향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군대 등의 지원을 받아 카퍼레이드를 하며 축제의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지역과 향촌에 커다란 자긍심을 키우는 구심점이 되었다(최홍섭, 2022).

고교야구의 전국화에 신문과 방송의 역할은 중요했다. 4개 주요 대회인 청룡기 대회는 『조선일보』,¹² 황금사자기는 『동아일보』, 대통령배는 『중앙일보』, 그리고 봉황기는 『한국일보』가 조직 및 후원을 맡았다. 그리고 각 신문사는 후원한 고교야구 대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야구 열기를 끌어올렸으며, 이후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고교야구는 다시 신문사의 구독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 1954년에 장기영이 창간한 『한국일보』는 야구를 포함한 주요 체육 사업을 통하여 구독자와 영향력을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었다(김영희, 2013).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고교야구 중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 스포츠 보도 역사 가운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첫 실황 방송이 고교야구 대회에서 실시되는 이정표를 만들었다. 첫 라디오 방송은 앞서 언급한 1946년 첫 청룡기 대회에, 그리고 첫 텔레비전 방송은 동양방송(TBS)이 1967년 대통령배에 실시되었다.¹³ 이후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고교야구 대회 중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동시에 미디어의 중계는 고교야구 인기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근대국가 형성 시기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 근대문물로 열차와 신문을 주목하였던 앤더슨의 연구를 생각해 보면(Anderson, 1983), 신문,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은 고교야구 대회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전국의 독자, 시청자, 그리고 야구팬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교야구 대회는

¹² 자유신문이 시작했던 청룡기 대회는 1953년부터 조선일보가 후원을 맡게 되었다.

¹³ 1967년 동양방송은 중앙일보의 자매 회사로 중앙일보가 개최한 대통령배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고교야구의 텔레비전 중계에 대한 논의는 오진곤(2018) 참조.

각 언론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매스미디어의 적극적인 관여로 해방 후 분단국가로서 남한의 전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1970년대 고교야구가 전국대회이자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이촌향도’ 현상이 있다. 고교야구 대회의 본선은 대부분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렸는데,¹⁴ 이를 통하여 고교야구 선수 관계자와 동문, 그리고 지역과 향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주연·이예원, 2011). 1960년대부터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는 도시화로 이어졌고, 전국의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서울로 다수 이동하였는데(손은영, 2018), 고향의 소속 학교가 참가하는 고교야구 대회와 시합은 고향을 떠나 서울이라는 낯선 타지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함께 만나 응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1975년 광주일고 우승 시에는 동대문 야구장뿐 아니라 을지로에서 무교동까지 4km를 5,000여 명의 동문과 팬들이 야구 중계를 보며 함께 응원하고 이야기하였다(이종성, 2024). 고교야구의 성지로 여겨지는 동대문 야구장은 고향을 떠나 서로 떨어져 있던 전국의 지역 출신 사람들이 잠시나마 고향의 학교를 함께 응원하는 공간으로 ‘이촌향도’의 서러움과 함께 고향의 향촌에 대한 소속감 및 지역 의식을 다시 되새기는 공간이 되었다.

동시에 고교야구 대회는 한국 사회의 ‘전국’에 대한 인식에 영호남 라이벌이라는 감각과 야구를 통한 지역 간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하였다. 결승전이 열리는 날 동대문 야구장은 출전학교의 동문회뿐 아니라 고향 팀을 응원하기 위한 향우회의 대리전 공간이었다(김은식, 2024: 374). 교육 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는 각 지방 및 도시의 엘리트가 모이는 공간으로 지방과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겨졌고, 고등학교 야구팀은 각 지역과 도시를 대표하였다. 초기 고교야구 대회에서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고등학교 야구팀이 대세였지만, 1970년대 호남권의 고교야구팀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였다. 1972년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는 군산상고가 부산고를, 그리고

¹⁴ 동대문 운동장은 개화기와 일본 식민의 역사가 담겨있다. 운동장의 대지는 개화기에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원에서 시작하였고, 1925년에는 일본 황실의 공주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한 운동장으로 건설되었다. 김혜경·김영수(2016) 참고.

1975년 대통령배 결승전에는 광주일고가 경북고를 이기고 우승하면서 호남과 영남의 라이벌이 더욱 명확해졌다. 1975년 대통령배를 회고하는 기사에도 광주 일고는 “호남야구의 자존심”으로 묘사되며 “전국 정상에 오른 것”을 강조한다(광주일보, 2004/02/25). 영호남 라이벌은 단지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기득권인 영남과 반대로 차별을 받은 호남 사이의 갈등과 연결되어 있어(김은식, 2019), 고교야구를 통한 지역간 경쟁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정치적, 경제적 차별의 인식에 기인하였고, 야구는 지역간 경쟁의 구도를 바탕으로 인기를 확장하였다.¹⁵

1970년대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던 고교야구 대회는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급격한 쇠락을 겪었다. 1982년에 고교야구의 관중은 전년도의 절반인 90만 명으로 그리고 1983년과 1986년에는 각각 41만 명, 그리고 33만 명으로 축소되었다(정준영·최민규, 2016). 프로야구 대회의 성공은 어린이 회원 모집 등 스포츠의 상업화 결과인 동시에 1970년대 고교야구의 인기를 견인하였던 지역 연고제를 기반으로 한 결과이다. 초기 프로야구는 해당 연고 지역의 고교야구팀 출신 선수만을 뽑는 방식을 통해 고교야구 대회에서 구체화된 지역 소속감과 영남과 호남의 경쟁의식을 활용하고 또한 강화했다(심은정, 2014). 인기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마야구의 상징으로 고교야구의 4대 주요 대회는 현재에도 신문사의 지원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고교야구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사랑받았을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우승팀이 나오면서 진정한 ‘전국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고교야구 대회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며 분단된 한국을 연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교야구 대회는 이촌향도를 통해 서울에 모인 지역민들이 고교야구팀을 통해 함께 모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향토애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고, 영호남 라이벌이라는 지역 감각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고교야구는 냉전 시기 북한을 배제한 남한만의 새로운 국가 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

¹⁵ 황지우(1983)의 시, ‘5월 그 하루 무뎠던 날’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다루는 내용을 고등학교 야구 대회의 야구장 풍경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VI. 결론: 미국과 일본과의 경합 속에 성장한 한국 야구

본 글은 해방 이후 부활하여 197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 고교야구를 통하여 한국 냉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해방 후 야구의 신속한 부활 및 고교야구 대회의 전국화 과정은 냉전 기간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과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일본 식민 통치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냉전 시기 한국 사회의 특성을 보여준다. 미군 야구단과의 교류와 지원은 한국 야구 부활에 핵심적이었지만, 동시에 고교야구대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일본의 영향력을 반영하였다. 고교야구를 통하여 해방된 국가에서 자유로운 대회 개최라는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여전히 일본 야구의 영향과 우월성을 체감해야 했던 당시의 습속은 한국이 일본 식민 지배와 맺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의 중첩된 영향력은 한국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냉전체제 속 한-미-일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서 충분한 탈식민을 경험하지 못한 탈식민의 한계적인 상태를 드러낸다.

동시에 본 글은 한국 야구의 급속한 성장은 냉전체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야구를 실천한 한국 야구인과 팬, 그리고 미디어의 적극적 매개의 결과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시기 고교야구대회가 분단국가로서 북한은 배제한 새로운 '전국'에 대한 인식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야구는 냉전 기간 고교야구라는 국내 대회를 통하여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로 성장하면서 지역 및 향촌의 정체성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야구는 미국 그리고 일본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다른 특성을 보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종목이 되었다.

1970년대 고교야구대회가 진정한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한 것은 북한을 제외한 분단 사회의 전국, 즉 공간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1970년 경 부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일일생활권'이라는 시간성을 형성한 것과 짝패를 이룬다(Kim, 2016). 고교야구가 냉전 기간 형성한 '국가적 공간성'(national spatiality)은

새로운 의미의 ‘팔도강산’을 구체화하면서 북한을 배제시킨 탈식민 국가의 상상적 공동체로서 분단된 국가의 영토와 소속감을 생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노명우, 2015; Kim, 2016). 냉전 시기에 구체화된 새로운 국가적 공간성은 고교야구 대회를 통해서 영호남 경쟁 구도 형성 그리고 이촌향도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영호남 경쟁은 남한 내 지역적 범주와 차별의 구도를, 그리고 이촌향도는 향촌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 서울 독점성을 동시에 상징하게 되었다.

현재 고교야구 대회는 1970년대 같은 전국적인 관심과 높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지만, 고교야구를 계기로 한 전국적인 야구에 관한 관심은 프로야구로 이어져 있다. 고교야구를 통해 구체화된 지역간 대결, 서울 중심성, 그리고 야구를 통한 도시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특성은 한국 사회에 냉전 시기를 넘어서 여전히 남아 있다. 승리 지상주의 그리고 폭력적 훈육의 흔적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발견된다. 고교야구에 대한 분석이 식민과 분단의 역사가 이후 세계화로 진행되는 냉전의 시기적 특성과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과 일본을 매개하여 구성되는 냉전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일부분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4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4년 11월 8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7일

참고문헌

- 가와니시 레이코. 2017. 『플레이블: 조선, 타이완, 만주에서 꽃핀 야구 소년들의 꿈』. 양두원 옮김. 서울: 워크룸.
- 구건서. 2010. “일본에 있어 미군점령기의 문화정책.” 『일본학보』 94: 159-171.
- 구본능·하일 편. 2005. 『사진으로 본 한국 야구 100년』. 서울: 새로운사람들.
- 권현익. 2013.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이한중 옮김. 서울: 민음사.
- 그로스버그, 로런스. 2023. 『새로운 세계에서의 문화연구: 로런스 그로스버그 선집』. 조영한·이미카 옮김. 서울: 컬처북.
- 김동규. 2000.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한국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전개양상과 전망.” 『한국체육철학회지』 8(1): 181-199.
- 김려실. 2019. 『문화냉전: 미국의 공보선전과 주한미공보원 영화』. 서울: 현실문화.

- 김성민. 2017. 『일본을 금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서울: 글항아리.
- 김영희, 2013. “<한국일보> 초기 성장과 성장요인.” 『한국언론학보』 57(6): 297-321.
- 김예림. 2007.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상허학보』 20: 311-344.
- 김은식. 2019.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프로야구의 탄생.” 『정신문화연구』 42(2): 477-509.
- 김은식. 2024. 『도대체 우리는 왜 야구를 보는가?』, 서울: 글의온도.
- 김학선. 2022. “신군부 정권의 가속 통치와 '3S' 정책.” 『사회와 역사』 136: 255-306.
- 김해경·김영수. 2016. “근대 복합운동 공간인 훈련원 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과 역사』 94: 121-156.
- 김혜자·에사시 쇼고. 1998. “일본 고등학교 야구 대회의 역사와 조직의 특성.” 『한국스포츠사회학지』 10: 125-138.
- 노명우. 2015. “스펙터클로 재현되는 ‘조국근대화’와 영화 <팔도강산> 시리즈(1967-1971)의 대중성.” 『인문콘텐츠』 38: 105-130.
- 마루카와 데쓰시. 2010.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장세진 옮김. 서울: 너머박스.
- 백원담·강성현 편. 2017.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냉전 아시아의 사상심리전』, 서울: 진인진.
- 사카이 나오키. 2008. 『일본, 영상, 미국: 공감의 공동체와 제국적 국민주의』, 최정옥 옮김. 서울: 그린비.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2008.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서울: 현실문화연구.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2009.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2』, 서울: 현실문화연구.
- 손터스, 프랜시스 스토너. 2016.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유광태·임채원 옮김. 서울: 그린비.
- 손은영. 2018. 『서울 탄생기: 1960-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 서울: 푸른역사.
- 손환·김승재. 1997. “구한말기에 있어서 제일 한국인 유학생 단체의 본국에의 원정 시험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원논문집』 21: 231-240.
- 손환·김재우. 2003. “한국의 야구 도입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5): 11-18.
- 신주백. 2006. “체육교육의 군사화와 강제된 건강.”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229-256. 서울: 문화과학사.
- 심은정. 2014. “제5공화국 시기 프로야구 정책과 국민여가.” 『역사연구』 26: 197-238.
- 오시마 히로시. 2023. 『재일코리아 스포츠 영웅 열전』, 유임하·조은애 옮김. 서울: 열린서

가.

- 오진곤. 2018. “1970년대 한국 ‘야구영화’의 특징에 관한 고찰: <영광의 9회말>(1977)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30: 267-301.
- 오타 오사무·허은. 2017. “책머리에.” 오타 오사무·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3-11. 서울: 소명출판.
- 유홍락. 1999. 『‘청룡기’의 스타들: 광복 그리고 아시아 정상』. 서울: 대한매일문화정보.
- 유홍락·천일평·이종남. 1999a. 『한국 야구사 1』. 서울: 지성사.
- 유홍락·천일평·이종남. 1999b. 『한국 야구사 2』. 서울: 지성사.
- 이용기. 2009.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71: 291-319.
- 이종성. 2024. 『야구의 나라: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어떻게 야구를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나』. 서울: 틈새책방.
- 이주연·이예원. 2011. “한국 야구 관람문화 변천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 24(2): 169-198.
- 이주영. 2015. “미국사학계의 새로운 냉전사 연구.” 『역사비평』 110: 86-111.
- 이하나. 2015. “1970년대 간첩/첩보 서사와 과잉 냉전의 문화적 감수성.” 『역사비평』 112: 371-411.
- 이희은. 2011.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가추법이 갖는 유용성.” 『한국언론정보학보』 54: 76-97.
- 장훈. 2007. 『일본을 이긴 한국인』. 성일만 옮김. 서울: 평단.
- 정준영. 2007. “스포츠공화국의 귀환-1987년 6월항쟁과 스포츠.” 『역사비평』 7: 125-145.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국면적인 경제읽기’를 제한하며.” 『커뮤니케이션 이론』 8(2): 22-64.
- 조형근. 2024. “냉전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과 국민 만들기.” 『사회와 역사』 141: 55-85.
- 조희준. 2016. “58년 ‘한국 최초’의 스포츠 마케팅.” 조이뉴스24(7월 6일).
- 천정환. 2010.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스포츠 민족주의와 식민지 근대』. 서울: 푸른역사.
- 최홍섭. 2022. 『그 시절 우리는 미쳤다: 1970년대 고교야구』. 서울: W미디어.
-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 허진석. 2010. 『스포츠 공화국의 탄생: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과 대한체육회장 민관 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홀, 스투어트, 채스 크리처, 토니 제퍼슨, 존 클라크, 브라이언 로버츠. 2023. 『위기 관리: 노상강도, 국가, 법과 질서』. 임영호 옮김. 서울: 박영사.
- 황지우. 1983.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서울: 문학과지성사.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 New York: Verso.
- Armstrong, Charles K. 2003.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2(1): 71-99.
- Butterworth, Michael, L. 2017. "The World Series: Baseball, American exceptionalism and media ritual." in Lawrence A. Webber & Andrew C. Billings ed. *Sport, Media & Mega-events*, 185-198. London: Routledge.
- Cho, Younghan. 2016. "Double Binding of Japanese Colonialism: Trajectories of Baseball in Japan, Taiwan, and Korea." *Cultural Studies* 30(6): 926-947.
- Duara, Prasenjit. 2011. "The Cold War as a historical period: An interpretive essay." *Journal of Global History* 6: 457-480.
- Eckert, Carter, J.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Gmelch, George & Nathan, Daneil A. 2017. *Baseball Beyond Our Borders: An International Pastime*.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 Guthrie-Shimizu, Sayuri. 2012. *Transpacific Field of Dreams: How Baseball Link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Peace an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ajimu, Masuda. 2015.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ughes, Theodore. 2012. *Literature and Film in Cold War South Korea: Freedom's Fronti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Han Sang. 2016. "My Car Modernity: What the U.S. army brought to South Korean cinematic imagination about modern mobilit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5(1): 63-85.
- Klein, Alan M. 2006. *Growing the Game: The Globalization of Major League Baseball*.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Lee, Namhee. 2022. *Memory Construction and the Politics of Time in Neoliberal South Kore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Lee, Sangjoon. 2020. *Cinema and the Cultural Cold War: US Diplomacy and the Origins of the Asian Cinema Network*.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Mitter, Rana & Patrick Major. 2004. *Across the Blocs: Cold War Cultural and Social Hist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eaves, Joseph A. 2002. *Taking in a Game: A History of Baseball in Asia*. Lincoln and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Rider, Toby C. 2016. *Cold War Games: Propaganda, the Olympics and U.S. Foreign Policy*. Urbana, Chicago & Springfield: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zymanski, Stefan & Andrew Zimbalist. 2005. *National Pastime: How Americans Play Baseball and the Rest of the World Plays Socc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Westad, Odd A. 2007.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차 자료〉

- 김기곤. 2004. “1975년 광주일고 야구 대통령배 우승.” 광주일보(2월 25일).
- 김명준 감독. 2014. <그라운드의 이방인>. KMDb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대한뉴스. 1957. “제126호.” e영상역사관 » 대한뉴스관 » 대한뉴스(ehistory.go.kr)(검색일: 2024. 10. 10.).
- 대한뉴스. 1958. 10. 27. “제186호.” 스포츠 대한뉴스(검색일: 2024. 10. 10.).
- 동아일보 1966. 10. 04. “한밤의 대낮 각테일·라이트照明塔6個.” 동아디지털아카이브(검색일: 2024. 10. 10.).
- 동아일보. 1946. 8. 3. “解放紀念慶祝(해방기념경축) 朝美親善野球試合(조미친선야구시합).” 동아디지털아카이브(검색일: 2024. 10. 10.).
- 동아일보. 1947. 8. 1. “第一次全國地區代表(제일차전국지구대표) 中等野球爭霸戰(중등야구쟁패전) 廿日(입일)부터五日間開催(오일간개최).” 동아디지털아카이브(검색일: 2024. 10. 10.).
- 동아일보. 1949. 3. 15. “大韓野球協會任員改選(대한야구협회임원개선).” 동아디지털아카이브(검색일: 2024. 10. 10.).
- 동아일보. 1954. 10. 9. “八回中高等(팔회중고등) 野球爭霸戰(야구쟁패전).” 동아디지털아카이브(검색일: 2024. 11. 16.).
- 동아일보. 1962. 10. 16. “「타이거즈」팀과 對戰 서울代表選手決定.” 한국 현대 사료

- DB(검색일: 2024. 10. 10.).
- 문화일보. 2013. 7. 12. “<문득 돌아본 ‘그때 그곳’> 유일한 유적; 조명탑 1963년 아시아 야구선수권서 일에 첫 승리. 첫 제패..‘우승기념 선물’.”
- 자유신문. 1946. 8. 12. “[운동경기] 중진들 제대 귀국, 朝·美戰 앞둔 24군.” 한국 현대 사료 DB(검색일: 2024. 10. 10.).
- 자유신문. 1946. 5. 15. “야구계의 명선수 總動, 4도시 대항전 인기 비등.” 한국 현대 사료 DB(검색일: 2024. 10. 10.).
- 장민석. 2020. “청룡기 결승전 날이면, 경성운동장은 사람으로 넘쳤다.” 조선일보(3월 6일)
- 정인엽 감독. 1977. <고교결전 자! 지금부터야>. KMDb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조선일보. 1956. 8. 30. “재일학생야구단육군본부(在日學生野球隊陸軍本部)를 방문(訪問).”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검색일: 2024. 10. 10.).
- 조선일보. 1957. 8. 9. “경무대(景武臺)를 예방(禮訪) 재일학생야구단(在日學生野球隊).”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검색일: 2024. 10. 10.).
- 조선일보. 1958. 8. 12. “재일교포고교(在日僑胞高校) 야구단입경(野球隊入京).”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검색일: 2024. 10. 10.).
- 조선일보. 1958. 10. 15. “미직업야구(美職業野球)팀 내입사일대전(來廿四日對戰).”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검색일: 2024. 10. 10.).
- 조선일보. 1962. 10. 16. “우리팀「멤버」결정(決定).”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검색일: 2024. 10. 10.).
- 조선일보. 1963. 9. 26. “한국(韓國), 일차(一次) 「리그」 서수위(首位)”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검색일: 2024. 10. 10.).
- 홍윤표, 2020. “한국 야구사 재발견(10) ‘해방 뉴-쓰’에 등장한 광복 후 첫 ‘도시 대항 야구대회’ 영상.” 조선일보(9월 1일).

Abstract

Examining Cold War Culture through High School Baseball Tournaments in South Korea

Younghan Ch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ld War culture through the lens of the high school baseball tournaments, which emerged as popular national sporting events in the 1970s. By tracing the revival and growing popularity of high school baseball tournaments after liberation and divis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Korean Cold War culture was shaped under the dual influence of the U.S. and Japan. The rise of baseball as a national popular pastime reflects the shifting power from Japan to the U.S. in South Korea and East Asia in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Cold War networks. Simultaneously, the growth of Korean baseball was driven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government, baseball officials, players, spectators and fans. High school baseball fostered a specific sense of national identity in South Korea, one that was both postcolonial and divided, and one that became a significant component of Cold War culture. Ultimately, this article argues that Cold War Korean baseball, epitomized by high school tournaments, symbolically represents the dynamism and uniqueness of Cold War culture, shaped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dual influenc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ustained by the relatively voluntary passion and participation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developmental regimes.

Keywords | Baseball, High School Baseball Tournament, Cold War Culture, Cultural Cold War, Postcolonial

